



#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ESG



( '23.9.20, 동남권ESG포럼 )

유연철 사무총장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전 기후변화대사)

## Table of Contents

- 01 들어가며: UN Global Compact 개요
- 02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 파리협정과 2050 탄소중립
- 03 ESG 공시 표준화 : 유럽연합/ 미국/ IFRS
- 04 지속가능경영 : 기업의 역할과 대응 전략
- 05 맺으며 : ESG의 비판적 고찰과 향후 전망

## I. 들어가며

### 궁금한 질문 다섯개

Q1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어떠한 기관이며 ESG와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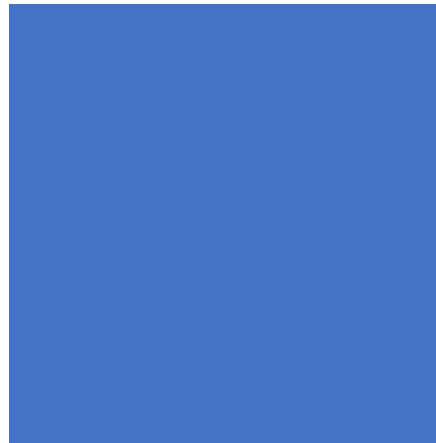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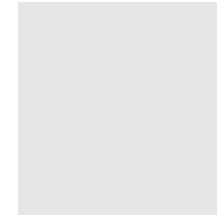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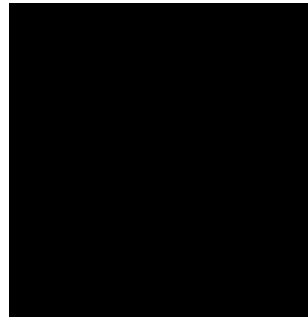
Q2 ESG 역사가 짧지 않다면 왜 2020년 전후 전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일어났나요?

Q3 기후관련 파리협정으로 대변되는 신기후체제는 지속가능한 체제인가요?

Q4 기업이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Q5 ESG가 하나의 트렌드나 마케팅 수단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 1. 들어가며: UN Global Compact 개요





## < 들어가며 >

###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UN Global Compact): ESG와의 연관성



- 1999년 1월 31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Kofi Annan 前 유엔 사무총장, Global Compact 제창
- 2000년 7월 뉴욕 UN본부에서 Global Compact(UNGC) 발족 (전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기업, UN기구, 노동, 시민 단체 참석)  
\*2007년 UNGC 한국협회 설립

#### 배경

- ⇒ 환경, 사회 이슈에 있어 기업의 영향력 확대
- ⇒ 유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중요성 인식
- ⇒ 유엔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기구 발족 필요성

#### 목적

- 인권.사회.환경.반부패 10대원칙의 비즈니스 내재화 및
- 새천년개발목표(MDG,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2030) 달성

## <UNGC 4개부문 과 10대 원칙 +SDGs >

기존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4대 부문 10대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추구

인권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 (1948)
노동 LABOUR	근로자 기본권선언 (1989,ILO)
환경 ENVIRONMENT	리우선언 (1992)
반부패 ANTI-CORRUPTION	유엔반부패협약 (2003)



지속가능  
발전목표  
(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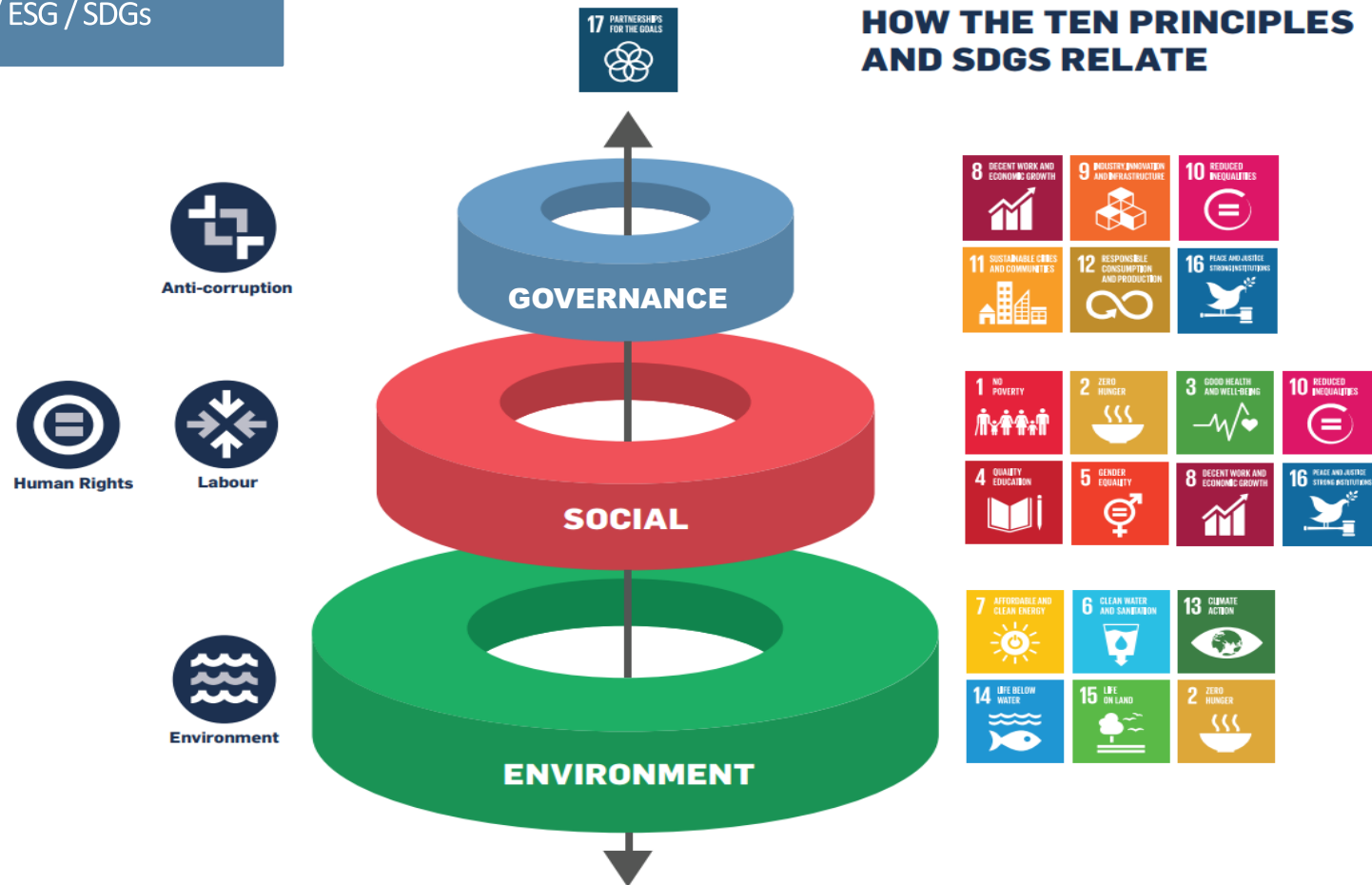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ROLLBACK - COMPANY | TheGlobalGoals@trollback.com | +1 212 529 1010  
For queries on usage, contact: opicampaign@un.org

# < UNGC 10 PRINCIPLES +SDGs (2015-2030년) >

UNGC / ESG / SDGs

## HOW THE TEN PRINCIPLES AND SDGS RELATE



## < ESG의 등장 >

###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 [1987년]



‘87년 세계개발환경위원회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문서에 환경과 개발문제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개념 등장

‘92년 유엔개발환경회의에서 전세계 대표는 리우선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 합의

### ESG 등장 [2004년]



‘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발표한 Who Cares Wins 보고서에 ESG개념 처음 등장

23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  
투자에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리스크 요인도 고려필요

### ESG 확산 [2006년]

#### UN PRI 6대원칙

- 1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투자 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2 우리는 투자 철학 및 운용 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된다.
- 3 우리는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 4 우리는 금융 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 5 우리는 금융 산업이 효과적으로 PRI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 6 우리는 PRI 이행 상황과 활동을 보고한다.

‘06년 전세계 투자자들이 ESG 투자를 위해 6가지 책임투자원칙(PRI)을 이행하기로 합의

블랙록 등 5000여개 참여  
국민연금도 2009년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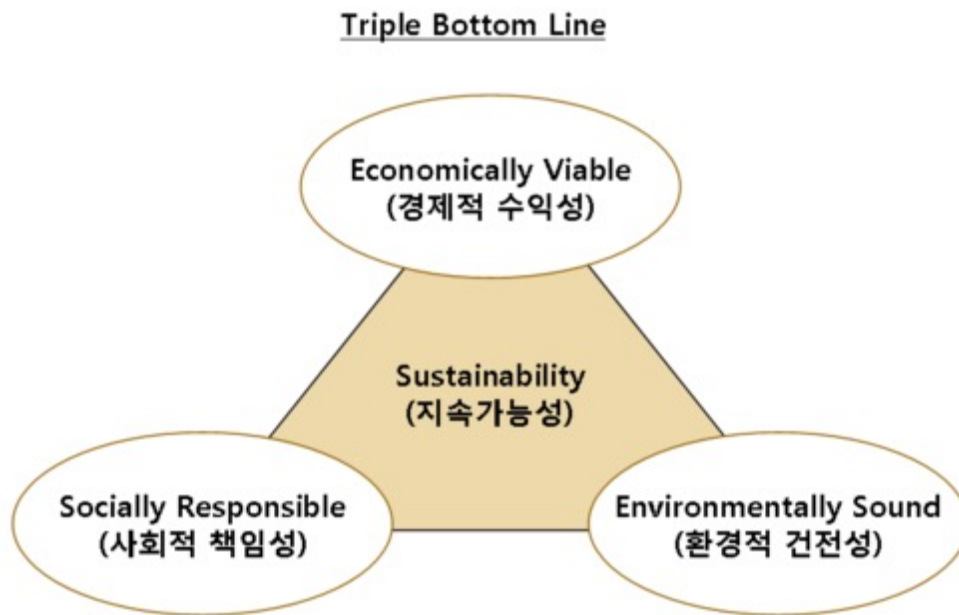


## < 지속가능발전 >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 브룬트란트 보고서, 1987

\*금년도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3’(9.1-5,베를린) 핵심 주제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III. ESG 대두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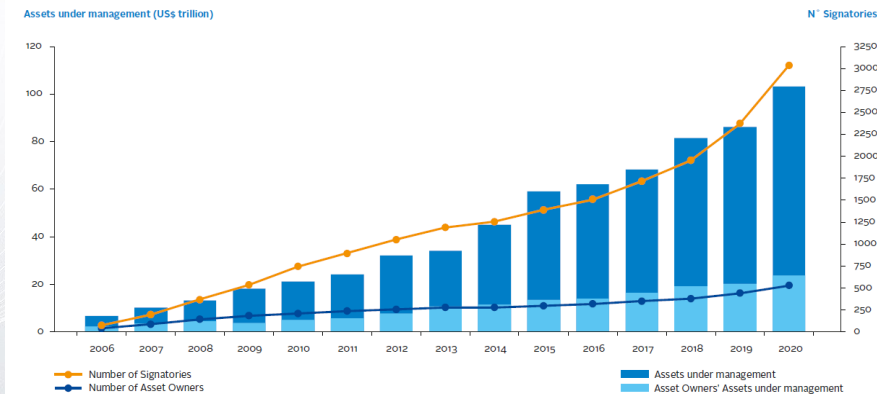
UNGC와 23개의 금융기관  
공동 작성 (2004)  
**'Who Cares Wins' 보고서에서  
ESG 용어가 최초 사용**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UNGC 및 UNEP FI(금융인셔티브)의 지원을 통해**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PRI) 발족으로 이어짐**



PRI는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투자 이니셔티브로서,  
전세계대표 연기금 포함  
총 4,000여개 기관 및 기업 서명, 전체  
운용자산 약 103조 달러 이상  
(전 세계 운용자산의 2/3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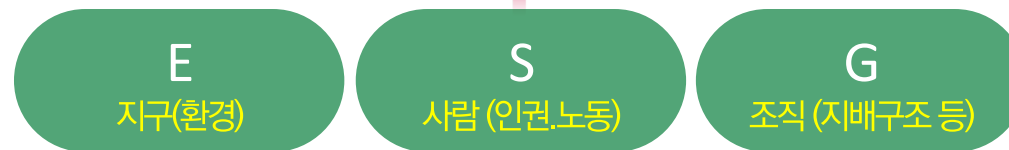
#### PRI 책임투자 6대 원칙

1. 우리는 ESG이슈들을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3. 우리는 우리의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4. 우리는 금융산업의 책임투자원칙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투자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
6. 우리는 책임투자원칙의 이행 관련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 <ESG 정신: 다른 것에 대한 배려>

Who Cares Wins : Those who care for others are to win.



≫≫ 배려하는 자, 승리한다 (승리=지속가능발전)

≫≫ 주주(Shareholder)중심으로부터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로의  
진화 및 동반성장 개념과 일맥상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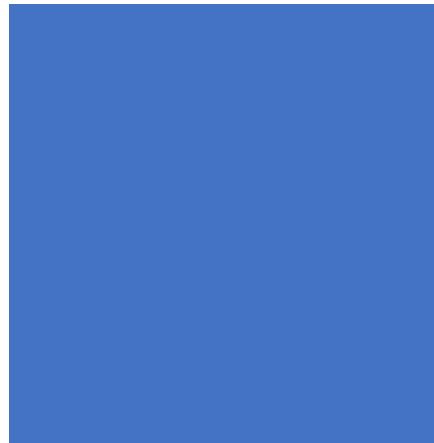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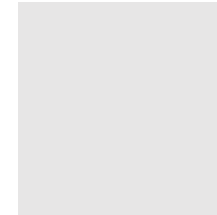
\*환경 : 협의 (자연환경) vs 광의 (안보.공부환경)



Q> ESG 역사가 이렇게 짧지 않다면 왜 2020년 전후 전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일어났나요?

=> 정부간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의 체결**(2015)과 이에 따른 **탄소중립 목표설정**(2020) 및  
**기업간 Business Roundtable**(2019)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흐름**과 밀접히 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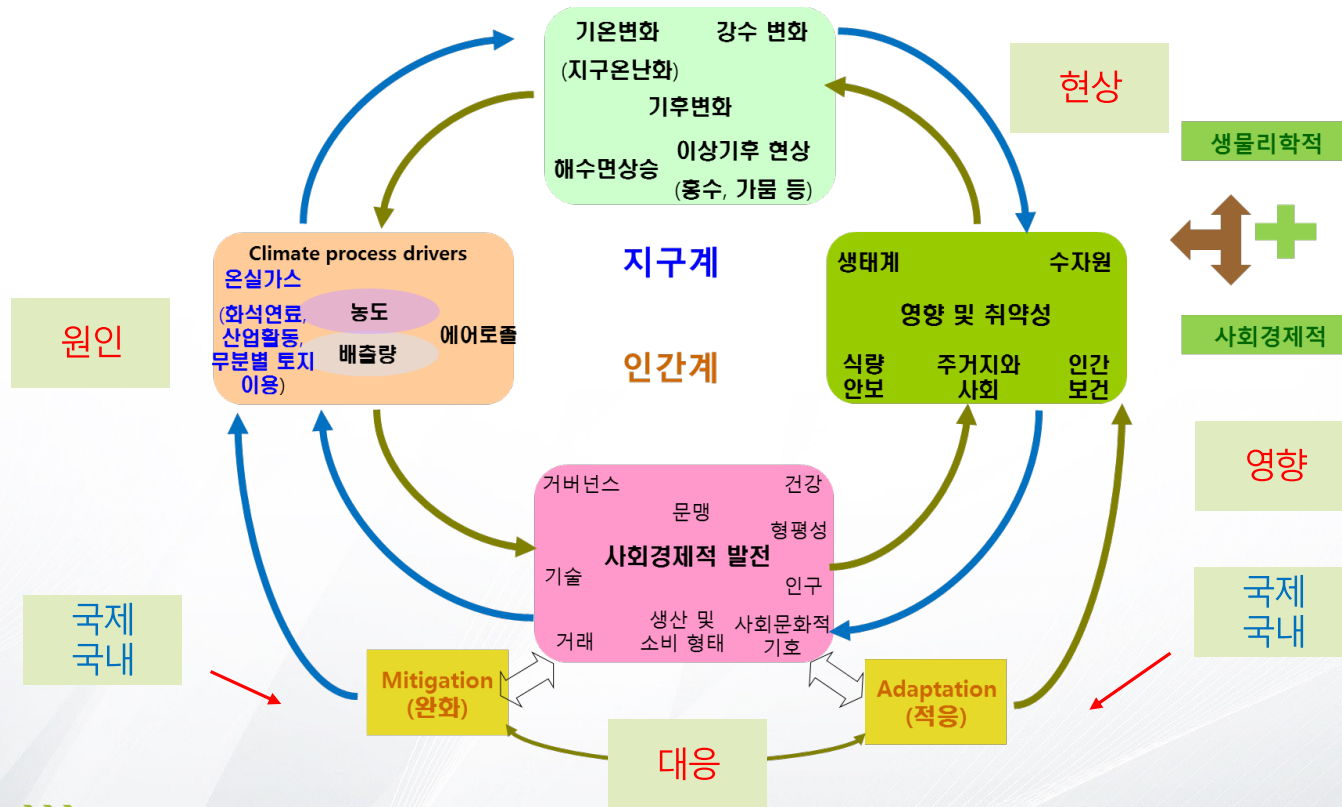
## 2.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정과 2050탄소중립



## <기후변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방법

기후변화의 **현상·원인·영향·대응**  
:광범위 => 총체적 접근 필요



기후변화의 논쟁: 과학적/ 정책적(선진.개도국)/ 정책적(현재투자vs미래이익)=>시장기능의 실패영역(정부의 출발)

## <기후변화와 IPCC>

기후.환경 이슈 : 과학으로부터 출발, 기술로 귀결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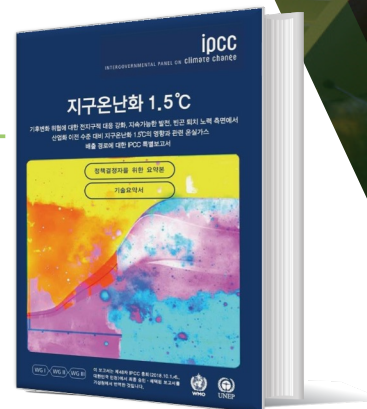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보고서 (과학적·독립적 기구, 전 이화성 의장)

- 1차 보고서 ('90): 기후변화 발생 => **기후변화협약** 채택('92)
- 2차 보고서 ('95): 인간행위로 인한 발생 => **교토의정서** 채택('97)
- 3차 보고서 ('01): 인간행위로 인한 발생가능성(66%)
- 4차 보고서 ('07): 인간행위로 인한 발생가능성(90%)
- 5차 보고서 ('14): 인간행위로 인한 발생가능성(97%)=>**파리협정**채택('15)
- 6차 보고서 ('23): 인간행위로 인한 발생가능성(명백)=> **논쟁종식**

▶▶ 인간의 행위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다는  
희망적 메시지로 평가 필요

IPCC 1.5도 특별보고서 채택('18. 10월, 송도)

-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현재 전지구 평균 온도 상승: 1°C
-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상승시 생태탄성력 상실 우려
- 기후 이변으로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위험에 직면 가능성 경고
-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상승 제한 요건:  
**CO2 배출량을 2050년까지 순제로 (net-zero) 배출 필요**
- **기후변화대응**은 **각국 지속발전**에도 기여 가능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의 확립>



###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간 기후협상 진행

-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 1997년 교토의정서(KP) 채택 (미국 비준거부)
- 2015년 파리협정(PA) 채택 (미.중간 큰 틀 사전 합의)

\* 전인류 직면 위협: COVID-19, 경제침체, 기후변화

▶ 상호연계 이슈 (근본적 해결: 기후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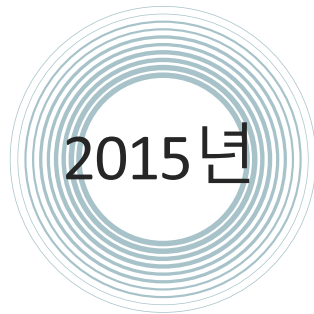


파리협정(PA)은 교토의정서(KP)의 시간적,공간적 확대 체제로서 지속가능한 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탈퇴 불구)

- 트럼프 美 전 대통령 탈퇴 선언('17.6.1)  
: 탈퇴 효력 발생('20.11.4)
- 바이든 美 신임 대통령 취임일 재가입 통보('21.1.20)  
: 재가입 효력은 통보 30일 이후 발생('21.2.19)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 신기후체제의 확립>

국제사회 직면 중점과제 : 새로운 접근법



01/

기후변화관련  
파리협정  
(Paris Agreement)채택



02/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채택



새로운 체제 모색

Key word

Sustainable & Inclusive->Diverse

구체제

교토의정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과거의 역사적 책임 강조)

새천년개발목표(MDGs)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중점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신체제

파리협정

모든 당사국의 참여 (자발적 공약)  
(과거, 현재, 미래 책임 강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든 국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사회공동체 회복 및 지구 생태계 복원



## II.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신 기후체제의 확립 : “정부간 큰 틀” 논의 마무리

### 기후변화 체제 : UN 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이행규정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KP)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PA)
구 기후체제 선진국만의 의무	신 기후체제 모든 당사국의 의무

### 신기후체제 : 지속가능한 체제 (2050 장기전략의 제출 요청가능-> 각국 2050 탄소중립 목표설정)

#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시간적·공간적 확대로서 지속가능한 체제

\* 시간적 : 과거(KP)·현재·미래 책임 모두 포함

\* 공간적 : 선진국(KP) 뿐만 아니라 개도국 모두 (미국과 중국 포함)

# 파리협정의 채택(15): 신기후체제의 출범

#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합의 완료(21): 신기후체제의 확립

기후변화 대응 : 국제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 신기후체제의 확립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_ 2017.6월

\* 발효효력은 2020년 11월부터 발생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 신기후체제의 확립>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 2017.6월

**More than 2,500 local leaders have signed onto the WASI statement**

230+ Cities | 9 States | 1,700+ Businesses | 320+ Colleges

- The states and cities in We Are Still In form the **third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in terms of GDP (**\$6.2 trillion**)
- We Are Still In represents **130 million Americans**, more than a third of the U.S. population
- Businesses signed onto We Are Still In command **\$2.3 trillion** in annual revenue, and employ nearly 5 million people.
- The academic institutions have more than **4.2 million students** and **\$114 billion** in total endowments.

트럼프  
행정부

VS.

**WE ARE  
STILL IN**

- 2017.6.5, 미 트럼프 대통령(연방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발표(6.1) 후 결성
- 미국 인구의 1/3 대표, GDP 면에서 세계 3위 수준  
=>기업 등 민간 및 주정부 주도

cf. **미 부시 대통령의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2000)**  
: 당시 미 산업계 동조 ('08년 미 자동차 경쟁력 상실)  
=> **파리협정 탈퇴시 정반대 반응**  
(미 산업계 거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 기업의 환경 변화>

Business Roundtable 회의 개최 (2019)

## 주주중심=>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진화

*Shareholder Value is No Longer Everything*

-Business Roundtable (2019)



Statement of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발표

01



Apple, Pepsi,  
Walmart, JP  
Morgan 등 미국 200  
여명의 기업 CEO  
들이 기업의 목적  
에 관한 성명 발표

02



기업의 역할에 관  
한 원칙을 '현대  
화 (modernizing)'

0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선언

- \*다양한 이해관계자 위한 경영
- \*장기적 주주가치 추구
- \*배제가 아닌 포괄적 성장 지향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 기업의 목적 및 성과 측정의 개념 확대

주주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기업의 목적인 수익개념의 시간적 확대

- 단기적 >>> 장기적 이익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Core for Resilience) 및 미래지향적 가치 중시

#### 책임대상의 확대

- 주주-> 고객 등 이해관계자 (People, Planet) 포함
- 포용성(Inclusiveness) 및 사회적 책임 수행

#### 기업의 성과 측정의 개념 확대

재무적 (단기적)	비재무적 (장기적)
영업(순)이익 등	환경적(E) 사회적(S) 성과
지식.기술.브랜드등 무형의 가치 미반영	지배구조(G)의 개선

#### ESG 개념

소극적

각종 규제  
(환경.중대재해.반부패 등)  
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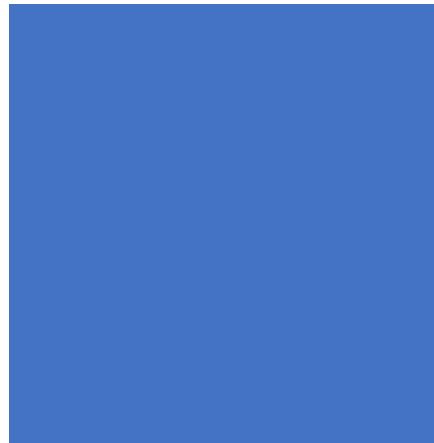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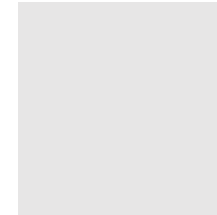
적극적

자발적인 사회적 가치의 창출  
(저탄소기술개발등)  
=> 재무성과로 통합

지속적(Sustainable)  
포용적(Inclusive)  
성장 추구

---

### 3. ESG 공시 표준화 : 유럽연합/ 미국/ IFRS







##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 시기: 채택 2014년 → 시행 2018년 (2017회계연도)
- 대상: EU 전역의 약 11,700개 기업 및 그룹  
(직원 500명 ↑, 자산 2천만€ ↑ or 순매출 4천만€ ↑ 대기업)



수정 (착수: 2020년)

##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EU 집행위(EC) '22.11.28 최종 승인)

- 발효: '23.1.6 → 적용: '24.1.1일부터 개시 회계연도부터 일정기준 충족 대기업부터
- 대상: 약 49,000여개 기업으로 적용 확대  
(직원 250인 ↑으로 변경, EU에 상장된 非EU 법인도 적용, 非EU 법인의 EU 자회사도 적용)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마련





## CSRD의 근간,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EU집행위원회(EC), '23.7.31 최종 확정)

### Cross-cutting Exposure Drafts

- ESRS 1 General principles
- ESRS 2 General, strategy, governance and materiality assessment

← 일반

### Topical standards - Environment

- ESRS E1 Climate change
- ESRS E2 Pollution
- ESRS E3 Water and marine resources
- ESRS E4 Biodiversity
- ESRS E5 Resource use and circular economy

← 환경(E)

### Topical standards - Social

- ESRS S1 Own workforce
- ESRS S2 Workers in the value chain
- ESRS S3 Affected communities
- ESRS S4 Consumers & end-users

← 사회(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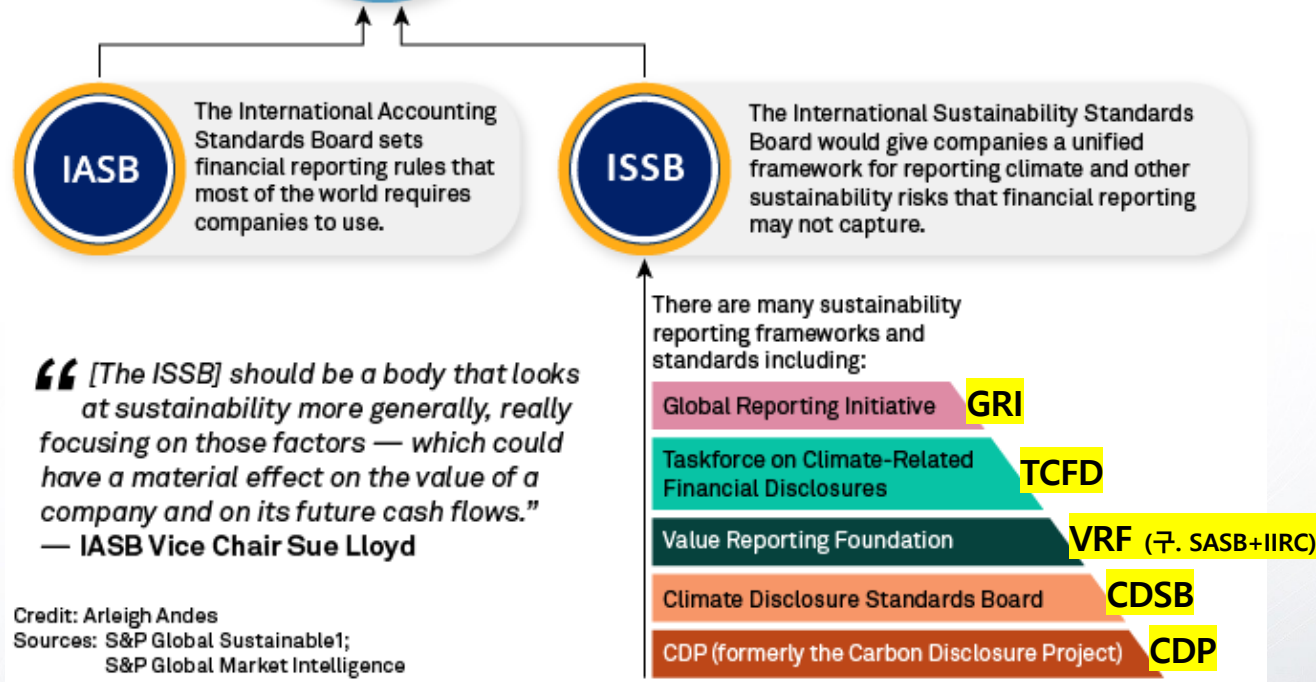
### Topical standards - Governance

- ESRS G1 Governance,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 ESRS G2 Business conduct

← 지배구조(G)+



## How ISSB fits in with reporting and ESG disclosure frameworks



## ISSB 출범('21.11). 지속가능성 공시('23.6):역사적 이정표

-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투자자, 채권자 등)의 기업가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기업이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 ISSB 기준의 도입여부는 각국이 결정
- 공개초안 발표: 2022년 3월 → 의견 수렴 → 최종 IFRS S1,S2 제정('23.6.26)
- 구성: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사항으로 구성 (추후 생물다양성등 확대)

(S1) 일반 요구 사항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s	
핵심 항목	일반 항목
-지배구조	-보고 기업
-전략	-연계된 정보
-영향.위험.기회관리	-공정한 표시
-지표.목표	-중요성
	-비교 정보
	-보고 빈도
	-정보의 위치
	-추정.불확실성의 원천
	-오류
	-준수 문구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 Climate-related Disclosures	
항목	부록
-지배구조	-산업별 공시 요건
-전략	* 대부분 SASB 기준 차용, SASB와 다른 부분은 파악 을 용이하게 위해 별도로 표시
-영향.위험.기회관리	
-지표.목표	

(표 출처: 한국거래소)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의무화

- 대상: 모든 뉴욕 증시 상장 기업 (非미국기업 포함)
- **Scope 1(직접배출), 2(간접배출) + Scope 3 (협력업체 배출)**  
 => **공시 취지 : 비즈니스의 전환 도모가 핵심**
- 기후 관련 (1) 물리적 리스크 + (2) 전환 리스크
- 시기: 2022년 3월(표결통과) → 의견수렴후 **금년 하반기** 확정 예상  
 → 2024년(2023 회계연도)부터 대기업은 Scope 1,2 정보공시 시작

구분	공시 일정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공시 준수 시점	
	Scope 1&2	Scope 3	제한된 인증	합리적 인증
상장 대기업	2023년 회계연도 정보 (2024년 제출공시)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2026년 회계연도 정보 (2027년 제출공시)
상장 중견기업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2027년 회계연도 정보 (2028년 제출공시)
상장 소기업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면제	면제
소규모 보고기업(SRC)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면제	면제	면제



## Scope 3 배출량 측정 반영 제품별 탄소 배출량 측정

제품별 탄소 배출량은 기업 경쟁력 비교 우위 측정의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

## 4.지속가능경영 : 기업의 역할과 대응전략



##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상황과 국제사회의 동향>

<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상황 : **변화**와 **공존**의 시대 >

  
변화

석탄,석유등  
전통적 에너지

에너지 대전환

선형경제  
Linear Economy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공존

인류와 지구(생물)의 공존  
취약국가, 취약 계층과의공존



### 02 국제 사회의 동향 : 모든 국가의 대응요구

그 간의 협상 논의 구조

Action For Action (선진, 개도국 모두 행동 필요)

Money for Action (개도국 행동을 위한 지원 필요)

⇒ 신 기후체제(파리협정)의 출범 : 모든 국가의 대응 강조 (지원 포함)

향후 논의의 핵심

목표설정애 따른 이행 : 이행수단 (자금.기술.역량강화) 에 대한 지원 긴요

탄소 가격의 내재화 (탄소 비용의 제품가격에 포함 : 유럽의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등)

R&D 확대를 통한 기술혁신 (ABC Tech : AI,Bio,Carbon(Clean..Circular) Tech 등)

## <ESG와 기업의 역할: 대응적+ 가치창출적 역할 수행 도모 >

기업: 행동의 주체 (문제해결 능력보유)

Driving Force for Solution=> 리더십의 비전과 전략 중요



### 대응적 역할

방어적 입장 (기업내 갈등초래)

#### 각종 공시, 규제에 대한 대응

환경(저탄소배출 등),  
사회안전(중대재해처벌법 등)  
지배구조 개선(반부패 등),  
공급망 실사 등

\*EU.ISSB(국제지속가능성기  
준위원회).미국이 공시 주도  
-우리나라도 추진 (올 하반기)



### 가치 창출적 역할

능동적 입장 (기업내 갈등해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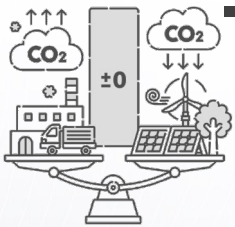
- 새로운 가치의 창출로 미래 비즈니스 기회 확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술혁신 등을 통한 당면 과제 대한 Solution 제시 및 이행**
- 기업의 지속가능성 가치 추구: 기업의 수익 및 브랜드의 가치 제고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 포용적 운영
- 정부의 정책 및 지원과 시민사회와의 협업 등을 통한 사회와 시장의 안정화

## < ESG와 기업의 역할과 대응전략 >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양면전략의 동시 수행 => 다양한 리스크 관리 가능

###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및  
저탄소 경제 시대로의 전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및  
저탄소 경제 시대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져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기여)

### 기업의 지속 성장 전략

# 양면전략의 동시 수행  
(Ambidextrous Organization Theory)

# 기존 전략의 보강.개선 (단기적)  
+ 미래 전략의 신성장동력 추진 (중.장기적)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 + ABC Tech 개발 등)

- 융합.복합적 접근 방식: 통합 경영 체제 구축 (환경+에너지 등)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충족 및 기술 혁신 과제의 수행



손흥민 (축구)



유재학 (농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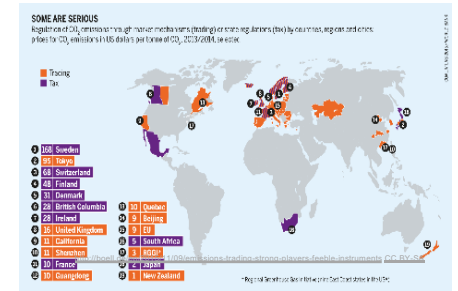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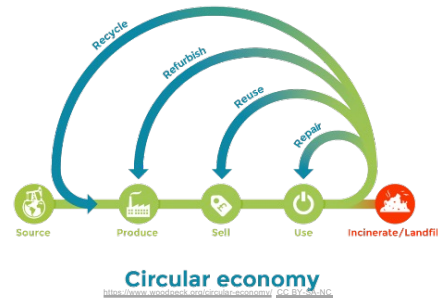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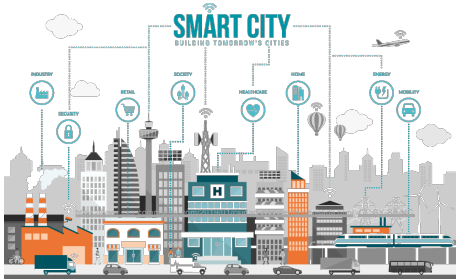


이정후 (야구)

양손 또는 양발  
자유자재 사용

## ▶ Twin Crisis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 접근방법

- # 기후변화->생물다양성 파괴 가속화(2c,10% 생물종 감소=> Nature-positive Economy 지향
-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관리 : 탈탄소화 등 도모=>디지털/ 순환/ 자연 기반 등 접근법 모색
  - 디지털기반 접근법 (Digital-Based Approach) -> Smart City (탄소배출저감 등 기후리스크 관리)
  - 순환기반 접근법 (Circular-Based Approach) -> Plastic-Free Society & Circular Economy
  - 자연기반 접근법 (Nature-Based Approach) -> City Forests 등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 시장기반 접근법 (Market-Based Approach)-> Carbon Market Mechanism 등 (비용 효과적 방안 모색)





## < ESG와 기업의 역할과 대응전략 >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양면전략의 동시 수행

자동차 타이어 업계의 사례 :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

### 미셸린으로부터 요구 사항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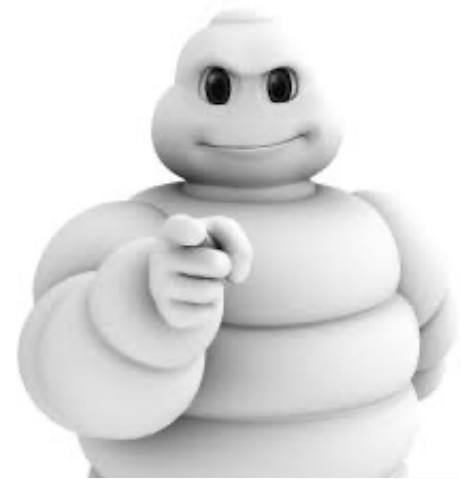
- RE100 가입, 제품생산 관련 탄소배출량 통계 제출 및 페타이어 활용 등  
(연도가 지나갈수록 요청의 강도가 급증)

#

### 타이어 업계의 대응

- RE100 이행 노력 경주
- 제품(와이어로프:강철철사밧줄) 생산 전체 공정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  
: 신규 철광석 채굴 및 사용 감소 등
- 페타이어 철사줄의 재활용 추진 → 순환경제로의 추진 가속화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도모

⇒ 과제 : 페타이어 재활용 철사줄의 순도가 낮아  
기술혁신을 통한 최고의 순도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  
(누군가는 Solution 확보추진을 통해 선점을 도모)



---

## 5. 맺으며: ESG 비판적 고찰 과 향후 전망



## ESG에 대한 비판 등장

### # Green Washing 등 과장된 ESG 공시 등에 대한 비판

### # Warren Buffett

- 가치투자 vs. ESG투자
- 2022년 3월 기준 석유회사 셰브론에 33조원 투자

### # 트럼프 대통령

- 연금 운용에 재무이익 최우선, ESG 투자 위축
- 바이든 대통령이 ESG 원칙 회복

### # ESG의 아버지 블랙록 CEO 래리 핑크의 변심?

- 2022년 1월 연례서한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 및 석유와 가스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에너지 전환의 원활화 목적 배경('22년 5월, 블랙록은 과도한 기후대책은 고객사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
- 2023년 3월 연례서한에서는 블랙록은 수년간 기후위험을 투자위험으로 간주했고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면서도, 기업은 환경경찰이 아님을 강조



## ESG 회의론의 배경

### 외부적 요인

- 1) ESG 경영 환경의 악화
  - › a)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및
  - b)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붕괴,
  - c) 원자재 가격 급등 등
- 2) 국제적으로 명확한 공시 표준이 혼재한 가운데 불확실성 가중
- 3) Green Washing 에 대한 우려 확대



### 회의론

### 내부적 요인

- 1) ESG 에 대한 심층적 분석 결여
  - › ESG를 하나의 트렌드나 마케팅 수단으로 보는 경향
- 2) ESG 에 대한 조직 문화의 상대적 미흡

## ESG 향후전망

ESG 경영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  
**ESG 경영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다만, 제반 상황 악화 지속시 속도 조절 전망 가능)



#

###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당위적 측면 지속 강조

파리협정으로 대변되는 신기후체제의 지속가능성  
=> 2050 탄소중립의 재천명 (각 정부 : 특히, **미국과 중국**)  
(‘22.11월 이집트 개최 제 27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등)

#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진화: 기업의 추동력 강화

포용적 측면 강조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충족이 중요

#

###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의 진보 및 투명성 강화

#

### 금년도 ESG 제도화의 윤곽 가시화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미국의 기후공시 및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와 우리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등  
=> **ESG 경영을 견인해 나가는 시그널이 될 것으로 전망**





## Key Messages

- 1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해서는 ESG경영이 필요하다.
- 2 ESG경영을 위해서는 공시취지에 맞는 비즈니스의 전환을 해야 한다.
- 3 비즈니스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 리더십의 비전과 전략이 필수적이다.
- 4 기업은 양면 전략의 동시수행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 5 탄소중립과 함께 ESG 글로벌 흐름 자체도 지속가능하다.

<맷으며>

변화와 공존\_우리의 선택:지속성.포용성.다양성 추구

한국거래소(KRX) 전시장

: 수작업 매매 최종일 시세 ('97.8.30)가 표시

- 당시 증권 매매 기업들의 명칭

: 현재 익숙한 상장기업들도 있으나, 대부분 기업들 사라짐

»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도태된다는 단적인 사례

\*글로벌.국내 대기업.국내 중견중소기업 상생

=> 선도적인 ESG 경영으로 전환 필요

수작업 매매 최종일 시세 (1997. 8. 30)  
The closing price of the last manual trading day

삼성전자	437P	421421	신한은행	112P	11111110	LG상업	722P	445665	현대건설	1418P	1220330320
SK하이닉스	348P	339239	한국전력	124P	1150150	현대자동차	8070P	8000050300	정유사	1520P	1650
삼성생명	1980P	1720720	한국지엠	124P	1150150	현대전자	708P	452652	현대증권	1980P	1980000000
한국지엠	321P	290290	삼성물산	4088P	4100120100	현대상업	1270P	1170170	정남기	338P	212215212
한국지엠	4670P	4600000	삼성생명	228P	214214210	현대건설	242P	342242	정남기	119P	110110
LG상업	448P	410410410	한국지엠	250P	230230	현대자동차	103P	104104103	정남기	92P	90
한국지엠	5000P	5440440	한국지엠	370P	341350341	현대건설	324P	210330310	정남기	92P	90
한국지엠	520P	520470	한국지엠	89P	82	현대건설	1110P	1030430	정남기	239P	240240240
한국지엠	340P	311312	한국지엠	644P	650600650	현대건설	1660P	1530500	정남기	173P	173160173
한국지엠	620P	620755	한국지엠	505P	465465	현대건설	411P	370370	정남기	163P	170170152
한국지엠	114P	105105	한국지엠	1400P	1400400	현대건설	460P	376376	정남기	191P	176177176
한국지엠	690P	640640	한국지엠	2880P	2750750750	현대건설	1120P	1050000050	정남기	352P	320225324
한국지엠	294P	270270365	한국지엠	342P	315315	현대건설	145P	134134	정남기	376P	346346
한국지엠	2200P	2200210200	한국지엠	1370P	1350350350	현대건설	632P	582582	정남기	1330P	1260270260
한국지엠	117P	100100	한국지엠	674P	605005	현대건설	1230P	1140140	정남기	219P	202202
한국지엠	190P	189190180	한국지엠	2140P	1970970	현대건설	1420P	143004040	정남기	197P	212
한국지엠	6700P	6440640400	한국지엠	1600P	1650440450	현대건설	2450P	2400640400	정남기	301P	305305304
한국지엠	1250P	1210240210	한국지엠	725P	300305300	현대건설	3550P	3500500450	정남기	164P	90

You are free to choose.  
You are not free from the consequences of your choice.

Who "cares" wins(2004) => Who "acts" wins(2020-30)